

“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”(눅 23:43). 구원은 선물입니다. 모든 권한은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.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.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길 간절히 원하십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, 부르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. 이 일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.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죄인을 부르고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.

선물 받는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. ‘믿음의 고백’입니다. 부르심이 먼저이지만,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. 주님은 죄의 경중이나 종류를 심사하지 않으십니다. 비교는 무의미합니다. 같은 상황의 찰나라도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응답하여 구원을 받았고, 한 강도는 비방으로 응답을 대신했습니다.

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.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.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됩니다. 구원에 지각은 없습니다.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 늦었다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는 흉악한 강도들 사이에 세워졌습니다. 기록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 한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혹은 알고도 지나쳤을 뿐 하나님은 늘 세상 곳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.

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.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며 비방했습니다. 그러나 다른 편 강도는 예수님께 겸손히 간청했습니다. “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”(눅 23:42). 그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,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갔습니다. 구원은 지식이나 선행이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. 어린아이부터 배움이 없는 사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.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.

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
응답하였습니까?

- ① 문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?
- ② 회개에도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까?